가거도 개발 1년만에 '없던일로'

'4대 끝섬' 관광자원화 사업 취소 통보

전남도 "정부 정책 불신만 키워" 비난

신안 가거도 등 전국 4개 섬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이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가 주요 정책을 2년도 못돼 번복한 것이어서 정책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가거도·백령도·마라도·독도 등 이른바 국토 '4대 끝섬'의 자연생태자원을 활용, 관광지로 발전시키려는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지난 2009년 1월, 4개 섬을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2014년까지 한 섬에 100억원씩 400억원을 투입해 경쟁력 있는 자립형 섬 개발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 올해 한 푼의 예산도 책정하지 않으면서 백지화된 것이다. 문광부는 지난해 예산도 지원하지 않았다.

문광부측은 "이들 섬은 면적이 좁아 관광 인프라 구축이 어렵고, 관광객들이 관광하기에도 힘들다"면서 "조만간 해당 자치단체에 사업 취소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도발 등에 따른 안보 문제도 사업 중단에 한몫했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해석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2013년까지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불과 1년 만에 정책 방향이 정 반대로 바뀌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처럼 정부 방침이 번복되면서 가거도를 휴양과 레포츠 기능이 포함된 복합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나섰던 전남도는 허탈해하고 있다.

전남도는 일단,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토 끝 섬 관광화자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건의하고 있지만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가거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며 "공식적인 사업 취소가 통보되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에 가거도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건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눈 피해 예상보다 적은 까닭은

'耐재해형 비닐하우스' 폭설 잘 견뎠다

피해액 70억원에 그쳐

광주·전남 지역에 최고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음에도 피해액이 70억여원에 그치고 있어 농가와 관계 당국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비닐하우스가 눈이 내린 양에 비해 피해액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잠정 집계된 이번 눈 피해액은 모두 70억7600만원으로 이중 비닐하우스 파손은 484동(25.9ha)이 눈으로 파손돼 26억19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거 같으면 해당 지역 비닐하우스 절반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며 "이번 적설량과 비교하면 피해액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12월 폭설 당시 발생한 재산피해액이 비닐하우스를 포함, 무려 4000억원에 달했던 것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피해규모가 예년에 비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도내 비닐하우스들이 대부분 정부가 제시한 표준규격으로 지어진데다 강풍과 폭설이 심한 곳은 내재해형으로 설치된 데 따른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표준규격보다 설계기준이 강화된 내재해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바람과 폭설에 훨씬 강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재해형은 정부가 30년 동안의 바람과 적설량을 비교해 각 지역별로 적설과 풍속에 따른 설계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적설기준 표준형의 경우 17cm 정도만 견디면 되지만 내재해형은 지역에 따라 20~25cm에서 40cm이상 등 적설에 따라 5개 설계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목포시와 곡성,영광군으로 35~40cm의 눈에도 견디도록 설계 기준을 제시해놓고 있으며 장성은 25~30cm, 순천·나주·여수시와 무안·고흥·구례·영암·강진·장흥·해남·완도·진도·보성 등은 설계기준 적설량이 20~25cm이다. 전남도내 비닐하우스 60% 정도가 이 기준에 따라 내재해형으로 보급돼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비닐하우스 관리상태도 피해규모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난방시설이 있거나 평소 관리상태가 좋은 비닐하우스는 큰 눈에도 잘 견디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내재해형이라 하더라도 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해 광주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1605t 거래

'2010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참가한 2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온실가스 2340t(CO_2)를 감축하고 탄소배출권 1605t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3일 "광주시청은 물론 5개 자치구, 교육청, 공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8개 공공기관에 대해 2007년, 2008년 평균배출량의 2%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3분기까지 추진한 결과 목표(2%)의 약 3배에 달하는 5.8%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나무 84만200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 시·도당 5·18묘지 참배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3일 오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5·18 묘지를 찾아 신년맞이 합동 참배를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구제역 남하 … 호남도 위태롭다

충남 보령서 추가 발생 … 6개 시·도 86곳 확산

구제역이 충청권과 강원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충남 보령과 강원 춘천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이번 구제역은 6개 시·도, 38개 시·군, 86곳으로 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충남 보령군 천북면 사호리 돼지농장과 강원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한우농가에서 오늘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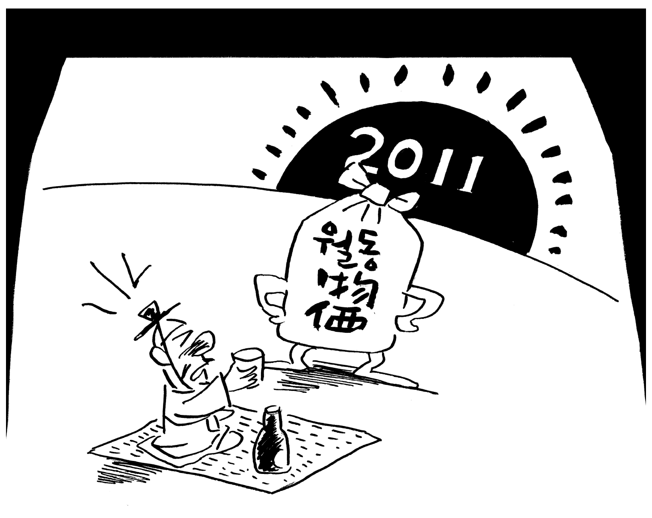
보령군 천북면은 대규모 축산단지가 위치한 홍성과 인접해 있으며, 특히 반경 3km 이내에 홍성 양돈·축산단지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충남도 방역당국에는 홍성과 서산 한우개량사업소, 청양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천안 축산연구원 등 충청 인근 지역의 축산단지를 사수하기 위해 초비상이 걸렸다. 이처럼 구제역이 충남 보령을 거쳐 홍성 축산단지 인근으로까지 확산되자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여주와 충남 천안에 둘러싸인 경기 용인.평택 등의 지역에는 가축 사육농가가 많은데다, 주변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교통요지라는 점을 감안,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방적 차원에서 백신이 접종될 지역은 용인·평택·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이다.

하지만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성리 한우농장에서 접수된 의심신고는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확인된 농가의 가축은 물론 반경 500m 이내 지역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매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미치겠다 시작부터 버티고 섰다

자녀 양육비 1인당 2억6000만원

출생~대학졸업까지

지난 2009년 기준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총 양육비가 2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행한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에 실은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에서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출생 후 대학졸업까지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총 양육비가 2억6204만4000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양육기간별 비용을 살펴보면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원, 유아기 3년간 양육비는 2937만6000원으로 산출됐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6년간 지출되는 양육비 6300만원, 중학교 학생 3535만2000원, 고등학교 학생 4154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6811만2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같은 양육비는 휴학, 재수, 어학연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데에는 약 5억2408만원이 소요되고 자녀 3명을 양육하는데 7억8613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영아 68만5000원, 유아 81만6000원, 초등학생 87만5000원, 중학생 98만2000원, 고등학생 115만4000원, 대학생 14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시, 호남권 SW품질역량센터 유치 성공

광주시는 3일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국가공모사업인 호남권 소프트웨어 품질역량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비 4억원 지방비 6억원 등 모두 10억원이 올 상반기 중 투입, 설립되는 센터는 지역 내 개발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국내·외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시는 전남도·전주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남권 소프트웨어 품질역량센터 구축'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올해 첫 호남권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한편 광주시는 호남권 소프트웨어 품질역량센터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양만권 UIT 연구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 각각 설치해 지역별로 차별화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담양 청동기 주거지 발견

담양의 대나무 바이오단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청동기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담양읍 한국 대나무박물관과 농업기술센터 사이 대나무 바이오단지 조성사업 현장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 주거지 흔적 등이 발견됐다.

주거지 흔적은 움막 형태를 하고 있으며 과거 도로 자리로 추정되는 곳의 수레바퀴 자국, 토기 조각 등도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訃告

李友行 大夫人 錦城 羅氏 其柱님께서 老患으로 二〇一一年 一月 一日 二十一時 三十分 別世
茲以告訃。

焚香所: 朝鮮大學校病院葬禮式場 第一焚香所
發靷日時: 二〇一一年 一月 五日 午前 九時
葬地: 全南 咸平郡 羅山面 牛峙里 先塋

二〇一一年 一月 四日

嗣子 李友行 子婦 金令子
奇行 鄭美蘭
女 任順 女婿 朴英埰
英順
英愛 吳浣燮
姸禮 趙成文

護喪 學校法人 豊山學園 理事長 河男柱

(個別訃告省略)

文成高 行政室 (062) 670-7500

豊山學園 設立者 故 豊山 李載郁 先生 未亡人
二〇一一年 一月 一日 二十一時 三十分 別世 茲以告訃。
豊山學園 任職員 一同

豊山學園 設立者 故 李載郁 先生 未亡人
二〇一一年 一月 一日 二十一時 三十分 別世 茲以告訃。
文成中·高等學校 教職員 一同

티켓몽키에서는
매일 밤 11시,
광주의 모든 곳이
반값이 됩니다!
http://www.t-mong.co.kr
50%~90%
지금 티켓몽키에서는
할인권 무료 증정
티켓몽키 가입회원 모든 분들께
팝아티스트 키스해링 특별전
2,000원 할인권 무료!
언제까지? 2011년 1월 3일까지!
지금 바로 티켓몽키의 회원이 되어보세요.
티켓몽키 입점 문의 070-7581-7766
티켓몽키에서는 광주의 모든 곳을 50%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NAVER 티켓몽키 를 검색해보세요.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안에 화재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을 빰치는데 거기에다 흔들며 떨어주니 찰랑거리는 머릿결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깜박이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섬세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섹시하니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린다. 본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범죄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폭발로 불티가 난다.

주문량 폭주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사 이 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